

# 보성군, 핵심과제 85건 선정... “중단없는 발전”

소외 없는 복지 등 5대 추진방침 골목상권 강화·자연재해 위험개선 매월 자체 보고회 통해 목표 달성

보성군이 2023년 핵심과제 85건을 선정하고, 보성군의 중단 없는 발전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28일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핵심과제 분야별 5대 추진 방침은 △소외 없는 복지, 든든한 행정 △다함께잡사는 농림축산업 △매력 넘치는 문화 체육 관광 △안전한 군민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권역별 지역개발로 균형있는 발전 등이

다. 먼저 △소외 없는 복지, 든든한 행정 분야에서 보성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신설, 전립선 질환 검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 복지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이밖에 종합정령도 1등급 달성 유지, 군민 체감 규제 혁신,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등을 통해 든든한 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업 분야에서는 보성키위 신규 과원 확대, 여자만 청정어장 재생, 신

소득 아열대과수 재배단지 조성,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최고품질 쌀 생산, 마을 전통수 가꾸기 등의 과제가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로는 12개 핵심과제가 추진된다. 보성군은 보성군립극단 활성화,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와 제46회 보성다향대축제 등의 축제 활성화, 보성 차정원 조성, 제석산 수석공원 조성 등을 통해 보성군의 매력을 전국을 넘어 세계로 알릴 계획이다.

안전, 환경, 경제 분야에서는 보성사랑 상품권을 3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을 강화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활성

화, 슬레이트 처리지원, 자연재해 위험개선, 상하수도 정비사업 등 군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예정이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보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 별교문화복합센터, 신흥동산 종합개발 사업 등 대형 SOC 프로젝트 완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보성군은 매월 부서 자체 보고회와 반기별 보고회를 실시하며 문제점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연말 최종 점검 후 성과분석을 통해 피드백 후 자체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핵심과제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 ‘구례300리 벚꽃축제’ 개최 31일부터 4월2일까지

구례군은 기존 ‘섬진강변 벚꽃축제’를 군 단위 축제로 확대해 오는 31일부터 4월2일까지 3일간 ‘2023 구례300리 벚꽃축제’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벚꽃300리 구례를 걷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의 주무대는 서시천체육공원이다. 서시천체육공원에서는 31일 오후 6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하공연, 버스킹, 스탬프투어,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조무대인 문척면 오섬공원 주차장에서는 섬진강변 노래자랑 등 방문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군은 문척면 월평교에서 오봉정사 사이 2.5km 구간은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명패리는 의자, 버스킹 공연 등의 이벤트를 열어 방문객이 여유롭게 벚꽃과 섬진강변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구례·김성현 기자

## 광양시 중앙도서관, 창작시 공모 4월3일부터 28일까지 접수

광양시 중앙도서관은 제59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2023 창작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4월3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023 창작시 공모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예비 작가를 발굴하고 광양시민의 창작 욕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등단 작가를 제외한 광양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자유주제로 1인당 1편을 중앙도서관에 방문, 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ssoyul120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창작시 공모전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광양중앙도서관(061-797-386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 ‘남도에서 한 달’ 참가자 모집 여수시, 하루 최대 15만원 지원

여수시가 내달 7일까지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참가자가 최소 7일에서 최대 30일 동안 전남 22개 시·군을 여행하면서 개인 SNS, 블로그, 유튜브 등에 남도 여행을 홍보하면 시에서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숙박비, 체험활동비 등 하루 최대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참가자는 여수시에서 50% 이상 숙박 및 여행 활동을 해야 한다.

모집 예정 인원은 10개 팀 15명이며,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광주·전남지역 외 거주자로 SNS를 통해 여수 및 전남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자를 우대 선발한다.

참가 희망자는 4월10일까지 여행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여수시 관광과로 등기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관광과 관광진흥팀(061-659-38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 화정면 여자도서 전기수리 봉사 한화솔루션 행복나눔단

한화솔루션 행복나눔가전서비스 봉사단과 쌍봉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5일 여수시 화정면 여자도를 찾아 전기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여자마을 이장의 추천을 받아 80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전등 교체와 전기수리 봉사를 펼쳤다. 특히 어르신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등을 전력소모량이 적은 LED로 전부 교체했다.

한화솔루션 임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가전서비스봉사단의 활동에는 지역 내 전기설비업체인 IMA, 현대 E&I, 우리기술산업, 대성FA와 쌍봉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홍범구 봉사단장은 “코로나19로 3년 동안 대면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웠는데 다시 봉사활동을 재개할 수 있어 더없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봉사단은 전기수리가 시급한 농어촌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 ‘풍덕 꽃가람 야영장’ 4월1일 개장 순천시, 오토캠핑장 60개소 설치



순천시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일상 속 캠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풍덕들 경관정원 일원에 1만3000㎡ 면적의 자동차 야영장 60개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풍덕 꽃가람 야영장(풍덕동 336-62번지 일원)은 2023 정원박람회 기간인 4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되며 9만평의 경관정원 감상과 동시에 도심 속 자유로운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전기시설 및 샤워장과 개수대 등을 완비하였으며 도심형 캠핑장으로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힐링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객은 텐트가 없어도 8동의 텐트 대여가 가능하고, 나무데크 5면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데크가 있는 구역은 평일 3만원, 주말·공휴일은 3만5000원이며, 데크가 없는 구역은 각각 2만5000원, 3만원이다.

예약은 28일부터 현장 및 순천시 바로 예약(www.suncheon.go.kr/yeyak)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순천·배서준 기자



한화솔루션 행복나눔가전서비스 봉사단과 쌍봉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25일 여수시 화정면 여자도를 찾아 전기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화솔루션 제공

## 순천시, 미래 모빌리티로 ‘탄소중립박람회’ 실현

### 전기자전거 등 100대 도심 비치 자율주행셔틀 첫 체험운행 실시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미래형 모빌리티인 공용PM과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운영해 ‘탄소중립박람회’를 실현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 PM(퍼스널 모빌리티)은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시는 전기자전거 90대와 전동킥

보드 10대 등 총 100대의 운송수단을 도심에 비치해 박람회 기간 차량정체를 해소하고 미래운송체계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순천역부터 정원박람회장 구간을 중심으로 동천변 자전거도로 등 안전한 운행노선을 제공하고 거처대 10개소를 설치해 불법 주차차도 해소한다. 이용을 희망하면 누구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간단한 등록절차만 거치면 편리하게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자율주행셔틀은 2022년 전남에서 유일하게 순천시가 국토부 자율주행차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박람회 기간 도심에서 첫 체험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공용PM과 자율주행셔틀 운영은 탄소중립박람회 실현 및 첨단기술을 기반한 미래를 선도하는 일류도시로 발돋움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 보성세계차엑스포 D-30... 경희공서 ‘봄업 페스타’ 개최

### 30일 왕의 차 ‘뇌원차’ 진상 행렬

보성군과 보성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 경희공에서 2023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 D-30 사전홍보를 위한 ‘봄업 페스타’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30일 서울 경희공에서 펼쳐지는 이번 봄업 페스타에서는 왕에게 보성 차를 진상하는 행렬과 고려시대 왕의 진상품이었던 뇌원차 진상식을 재현한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이번 페스타는 4월29일부터 열리는 ‘2023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마련

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한국도로공사 전 사장 손학래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재경향우회, 사회단체, 차 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성차 진상 행렬을 시작으로 고려시대 왕의 진상품이었던 보성 뇌원차 진상, 홍보대사 위촉식, 차 나눔 행사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됐다.

홍보대사는 아이돌 그룹 머스트비(남성 5인조)와 시그니처(여성 7인조), 서울 노원구 운영준위원, 서울 성북구 소형준 구의원을 위촉해 수도권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엑스포 홍보 분위기를 집

중시킬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인 김철우 보성군수는 “엑스포 개막 30일 행사로, 조선의 5대 공궐 경희공에서 왕의 차를 진상하는 재현 행사를 열게 돼 매우 뜻깊다”며 “엑스포 성공 개최를 통해 천년의 보성 차가 세계를 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세계차엑스포는 오는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9일간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열리며 △보성다향대축제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동시에 열리는 통합축제형 엑스포로 개최된다.

김은지 기자